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성지순례기

양경숙 미셀 객원기자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성모님 발현지 성지순례 중 순례자들과 이효인 신부(첫 번째 줄 가장 왼쪽)와 필자(둘째 줄 왼쪽에서 첫 번째)

〈편집자 주〉 펜실베니아 주 필라델피아 홀리엔젤스 한인 천주교회 이효인 펠릭스 주임 신부와 신자 40명, 뉴저지 주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신자 3명, 필라델피아 성모 마리아 한인성당 신자 1명은 지난 3월 28일(월)부터 4월 9일(토)까지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성모님 발현지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본당 주최로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성지순례를 무작정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영적으로 몹시 매달라 있던 나를 하느님께서 뜨겁게 안아 주시고 성령으로 축축히 적시어 나머지 내 삶의 여정을 풍요롭게 채워주시리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세속적인 것들에 집착해 치열하게 싸우느라 마음 안에 쌓아 올린 탐욕과 불판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떠난 순례길이었다. 인생의 끝자락에 매달린 나이 인데도 나는 분노에 곧 잘 매몰되고 누구를 뜨겁게 사랑해 본 적도 없는 엉터리 신자였다.